

5·18 행불자 이창현군, 양동초 명예졸업장 받는다

1학년 재학 중 집 나간 뒤 실종 제38주년 기념식서 사연 알려져 본보 보도로 제적 확인·졸업 추진

1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이창현군이 모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1980년 당시 양동국민학교 1학년이었던 이창현군의 명예졸업식이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광주양동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이군의 가족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전달하고 양동초 동문인 박준수 시인이 직접 창작한 추모시를 낭송한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행방불명된 이군은 1980년 3월 양동국민학교에 입학해 휴교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학 중이었다. 이군의 아버지인 고(故) 이귀복씨가 유족 증언록(꽃만 봐도 서러운 날들, 2007)에 구술한 내용에 따르면 휴교령이 내려지고 집에만 있던 이군은 거리에서 이어지는 군인들의 행렬이 신기했고, 사람들이 모여 뭐라 외쳐대는 소리가 궁궁

해져 집 밖을 나섰다는 것이다.

그 뒤로 사라진 이군의 흔적이라도 찾기위해 가족들은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이군의 누나인 이신영씨도 “당시 5학년이었던 나와 함께 종종 등교했다. 길지 않은 학교생활이었지만 평범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며 “5·18 항쟁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창현이의 담임선생님이 (창현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며 찾아오라고 했다. 월례별떡 교문 밖으로 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애절한 심정으로 창현이를 찾아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이군의 이야기를 소재로 공연이 진행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다.

당시 이군의 아버지 이귀복씨가 직접 무대에 올라 “한 번 간 아들은 오지 않고 소리도 없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세월이 흘러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국립5·18민주묘지 행방불명자 묘역에 위치한 이창현군의 묘.

희생 학생 중 학업 중단자를 대상으로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창현군도 대상에 이름이 올랐지만 양동초에 이군의 생활기록부나 제적부가 없어 진행되지 못했다. 양동초 측은 생활기록부는 졸업생에 한해 남아 있었고, 제적부는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었기에 80년을 포함한 일부 연도의 제적부가 사라지고

없으며 이군의 제적부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때문에 양동초는 그간 5·18과 행불자 단체의 요청에도 명예졸업장 등 이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본보가 5·18 기획시리즈인 “이제서야 발견된 5·18 행불 ‘창현

이의 제적기록”(2023년 5월11일자 5면)을 보도하면서 이군의 공식 제적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보는 이군의 아버지가 지난 1988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신청했을 당시 양동초로부터 이군의 제적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할 서류로 이군의 제적을 확인했다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조사기록을 확인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이군은 1980년 3월5일부터 동년 4월16일까지 등교, 이후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결석으로 제적됐다.

이군의 제적사실을 확인한 양동초는 곧바로 지난 3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군을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2024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하기로 했다.

이군을 대신해 명예졸업장을 전달받는 누나 이신영씨는 “창현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무척 기뻐할 것”이라며 “모교인 양동초의 배려와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글·사진=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반성 없다”... 여인숙 주인 살해 7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23년→27년으로 늘어나

4년간 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지난 14일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이곳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곳 여인숙 장기 투숙객으로 B씨와 평소 원한에 따른 갈등을 빚어오다 이날 말다툼 끝에 술을 마신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인

숙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빈도가 잦았고 B씨는 이에 불만을 토해내며 앙금이 쌓였다.

A씨는 경찰에 ‘B씨는 나이가 많은 나에게 상습적으로 반말을 했다. 당시에도 선풍기가 고장나 수리를 요청했는데 고쳐주지 않고 도리어 반말로 화를 돋궈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 범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 측의 고통도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웠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최재영 목사 민주묘지 참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가 지난 14일 전북인권선교회인들과 함께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 참배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록!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록! 바로 바로 확인까지 록!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 암 백 산 지 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